

양돈업의 미래 "친환경 유기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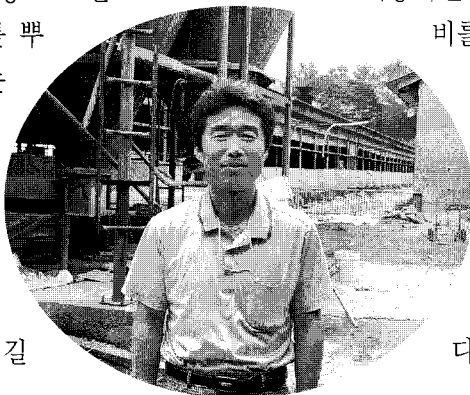
/취/재/

액비탱크 지원받아 논에 시비하는 충남 홍성 덕우농장

10년을 넘게 벼농사와 양돈업을 함께 해 오다 13년 전인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돈업을 시작, 모돈 200두 2,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홍성군 결성면 덕우농장 박일규 사장(48세)은 양돈인이면서 농사꾼이다.

그는 현재 농장에서 2km정도 떨어진 논에 200톤 액비탱크 2기를 설치하고 액비를 인근 수도작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논농사에 잔뼈가 굵은 박 사장은 누구보다도 벼농사 짓는 농가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논부터 액비를 뿌리기 시작, 이제 액비를 뿌리고 있는 곳이 주위 16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주위의 좋은 반응으로 올해 가을에는 액비를 뿌려야 할 농가는 25농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액비 활용을 위해 논 증양에 길



▲박일규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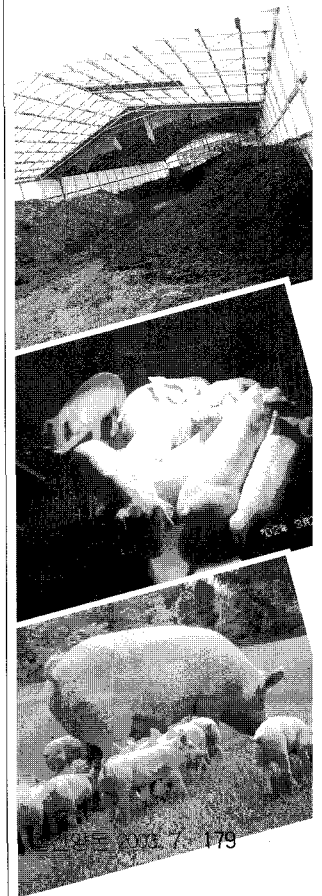
을 내고, 액비를 뿌리는 4톤 탱크와 트랙터, 그리고 연료탱크까지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왠지 분노를 치우고 없애는 것만 중요한 다른 농가들과는 생각부터가 다르다. 그가 농사꾼이기 때문일까? 박 사장이 실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액비 이용방법을 한번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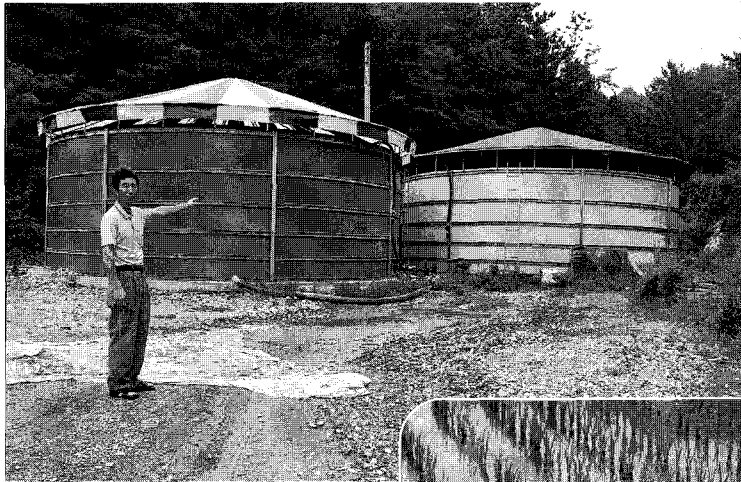
연간 3,500만원~4,000만원의 분노 처리비 크게 절감

해양투기와 시군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던 박일규 사장이 액비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논 25,000평을 액비 뿌릴 곳으로 확보해 홍성군에 200톤 탱크 1기를 보조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취재 : 조 진 현



리
짜



▲박일규 사장이 200톤 규모 액비탱크 2기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전액 시군의 보조로 설치했다.

▶액비를 뿌린 박일규 사장의 논, 특이하게 이끼가 논에 잔뜩 끼어 있다.



3년간을 먼저 자신의 논에만 뿌렸다. 2~3년 농사가 액비로 잘 된 것을 보면서 주위 벼농사 농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해에 7농가에 액비를 뿌렸다. 올해 들어 봄철 15농가의 논에 액비를 뿌렸으며, 올 가을과 내년 봄에 액비를 뿌려달라고 하는 농가는 어느덧 30여 농가로 늘어났다. 액비 탱크도 이제 2개다. 또 1개를 추가로 신청하여 곧 착공될 예정이다. 200톤 액비 탱크가 4개가 되면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량을 모두 액비로 처리할 수 있다.

액비는 봄철(춘비), 가을철(추비) 2번 뿌리며 200톤 탱

크 하나에 약 65마지기(13,000평, 1마지기=200평)를 한번에 뿌릴 수 있다. 즉 1년에 2번, 130마지기(26,000평) 넓이에 액비를 뿌리는 것이다. 단, 춘비는 모심기 전 한달 사이에 뿌려야 하므로 한 달새 뿌리는 양이 많아 다소 힘이 든다. 액비는 4톤 탱크에 담아서 트랙터에 끌고 박 사장이 직접 논으로 들어가 골고루 흩어 뿌리고 있다.

박 사장은 액비를 뿌리기 위해 주변에 인가가 없는 농장에서 2km 떨어진 자신의 논에 탱크를 설치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닦았

다. 또 트랙터 1대, 4톤 탱크 2기, 기름탱크 1기를 구입했다. 85마력 트랙터는 4천만원, 기름탱크는 1천1백만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액비 저장탱크의 폭기조 이용에 따른 전기세도 탱크 2기에 월 8만원 정도이다. 액비를 뿌리기 위한 기름값도 만만치 않다. 연간 3,000리터 정도가 소요된다. 1톤 탱크에 3번 채우며, 면세유로 한번 채울때 60만원씩 연간 180만원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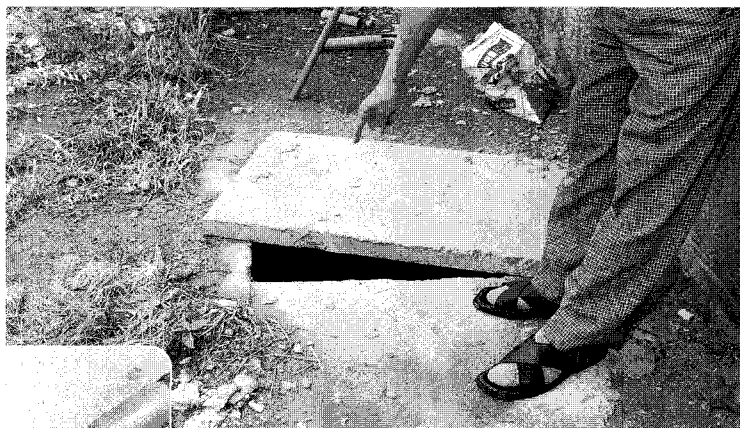
그러나, 박 사장은 액비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싼 해양투기 등으로 연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갔다면, "힘은 들지만 예전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무엇보다 직접 깨끗이 처리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수도작 농가의 시선에서 '액비' 사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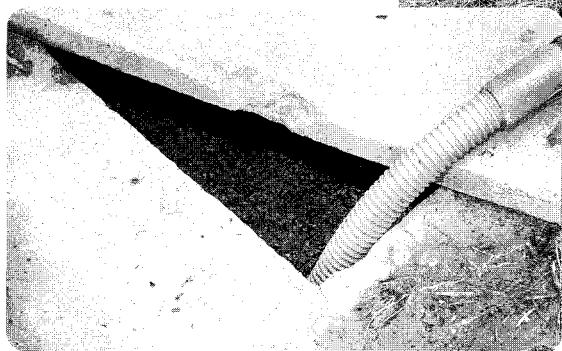
박일규 사장은 자신이 "액비화에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그가 액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일까? 그는 논 농사를 지어본 농사꾼이었다. 액비를 '처리하고 없애는 방향' 보다는 수도작농가 측면에서 '액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첫째, 그는 철저히 6개월 부숙시킨 액비를 사용한다.



▲박일규 사장이 액비탱크로 옮기기 전의 분뇨를 가리키고 있다. 덕우농장은 스크레퍼 돈사이다.



직접 자신의 눈에 설치된 탱크에서 액비를 옮겨

가 비료 값을 크게 절감하고, 지력을 높이며, 유기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봄철 액비 탱크를 비우고 가득 채워 논 액비를 11월 가을철 추비로 뿌린다. 또 추비를 뿌리고 빈 탱크에 액비를 채워놓고 5월 모심기 전에 뿌린다. 분뇨가 발생하는 대로 계속 추가로 붓거나, 6개월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뿌리지도 않는다.

담아 트랙터를 이용해 요청하는 곳에 골고루 뿌려준다.

실제로 수도작 농가들은 1마지기 당 3포의 비료를 쓴다. 봄, 가을철 밀거름으로 포당 4,500원짜리 2포를, 이삭이 필 때 쫄 이삭거름으로 7,000원짜리 1포를 시비한다.

둘째, 자신의 논부터 실시했다. 수도작 농가들은 자신의 생계가 달려 있는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한다. 옆의 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도록 노력했다.

또, 뿌리는 양을 조절한다. 기름진 점질 토양의 경우 900평당 4톤 탱크 1번만, 모래땅 등 사질토양에는 900평당 4톤 탱크 5번까지 액비를 뿌린다. 봄에는 조금 적게, 가을에는 조금 많이 넣는다. 오래 농사를 지어 본 박 사장만의 노하우다. 땅에 맞춰 액비의 양을 조절하고 또 액비가 한 곳에 많이 뿌려져 벼가 도복(쓰러짐)되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주는 그의 정성은 자신의 눈에 비료를 뿌리는 사람같다.

따라서 액비를 이용할 경우 밀거름 2포, 즉 1마지기 당 9,000원의 비료 값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1마지기당 9,000원이면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매우 큰 금액이다.

셋째, 노령화된 수도작 농가들을 위해 직접 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액비가 수도작 농가들에게 액비

또 수도작 농가에서는 시비하는 일손도 절감할 수 있으며, 농약도 3번 할 것을 1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박사장의 설명이다.



▲분은 왕겨를 이용해 퇴비화하고 있다. 용역을 주고 있으며, 예전에는 왕겨값을 업체가 감당했으나 점차 1/2, 1/3로 줄어들다 이제는 박일규 사장이 왕겨 값 전액을 내고 있다. 업체는 처리해서 가져가만 한다.

전문 액비 관리업체 필요

박 사장은 다른 양돈농가들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수도작 농가들의 호응을 먼저 얻어야 액비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액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액비 탱크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액비탱크를 양돈농가가 직접 지을 수는 없다. 액비 탱크를 시군의 전액 보조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아닌 경종농가들의 사용신청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박 사장 또한 주위의 벼농사 농가들의 경작지 25,000평을 사용면적으로 잡고 벼농사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식으로 하여 흥성군

에서 액비 탱크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박 사장은 앞으로는 축산농가가 아닌 시군이나, 전문 액비 관리업체가 있어 경종농가

와 축산농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액비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내년까지 200톤 탱크 4기를 이용할 계획이며, 트럭터도 1대를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봄철에는 혼자서 한달 새 800톤을 눈에 뿌리고, 800톤을 다시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800톤이면 5만평이 넘는 엄청난 면적에 뿌리는 양입니다"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 생겨 축산농가의 액비를 가져다가 경종농가에 얼마의 수고비를 받고 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길 바라고 있다.

앞으로 양돈업은 '분뇨처리가 관건'

박일규 사장은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양돈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분뇨처리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며, "분뇨처리 방법이 없는 농가는 불과 3-5년 안에 양돈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수도작 농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너무 성급하지 않게 3년여에 걸쳐 서서히 액비에 대한 신뢰를 쌓아 올렸다. 그는 액비화에 성공했다. 그는 액비화를 통해 연간 3,500만원~4,000만원이 들어갔던 분뇨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불과 2년여 만에 투자 시설비를 회수했다. 또 앞으로 돈가가 낮아도 다른 농장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박 사장의 말대로 앞으로의 분뇨처리 방향은 친환경적인 자원 재활용 뿐이다. 오늘 내일이 아닌 10년을 내다본 양돈업을 위해 액비화를 검토해보자. 그러나, 단지 분뇨를 없애고 치우기 보다는 경종농가를 먼저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돈**